

시론 엘리엇 공격, 공정거래법부터 개정해야

전 삼 현
승실대 교수·법학



지난 2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저지했다. 최근에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71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다고 한다. 엘리엇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길들이기에도 나선 듯하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처방법이다.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상법·자본시장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즉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집중투표제·무효,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엘리엇의 공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차등결권이나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대기업들은 정관 변경이라는 벽에 막혀 이를 전파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헤지펀드의 공격을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사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기한에 압박해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이라는 다른 제안을 하면서 2개월 만에 현대차와 공정위의 안을 무산시켜버렸다. 2개 대기업이 합병해 지주사가 되어만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완성차 제조업체(OEM)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즉 금산(金産) 융합을 통해서라도

“헤지펀드 공세 ‘영영권 방패’도 부족 금산분리·순환출자 규제 완화하고 경영정보 공시제도도 보완해야”

현대차그룹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엇의 반대 이유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원장은 일반주회사가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과 같은 금융사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금산분리 위반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엘리엇이 공정위의 판단에 순순히 따를 것 같지는 않다.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공정위가 반대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ISD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의 주체가 더 이상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외국계 헤지펀드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개입 정도를 조절하면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감독의무를 위반한 위반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엘리엇과 같은 헤지펀드들의 공격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개정보다는 오히려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찾는 것이 선순위인 듯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에 대해 경정화된 현행 규제체제를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회사나 손자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경정화된 자본 소유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환출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경우, 공정위의 순환출자 해소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배구조 개편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순환출자 해소가 우리 경제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 대기업들이 금정정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중요한 경영정보와 자본소유 구조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제도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공시가 헤지펀드들에 공격투트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사설

“감당 가능하다”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엔 사활 걸린 문제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기간 기업들은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삼성전자가 선택한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도입계획을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무엇보다도 현상 온란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1-3년 걸린 제품개발 주기를 부득이 중단한다 3-6개월 늘려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현대카드와 TV처럼 제품주기가 짧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자칫 속도 경쟁에서 뒤쳐질 수도 있다. 건설, 플랜트 같이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업종의 기업들은 ‘멘붕’ 상태다. 어디까지든 근로시간으로 불지 모호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14만~18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과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이다. 이 같은 간극은 **한경이** 마켓비전컨설팅그룹에 의뢰해 조사한 ‘주52시간근로제 대비 상황’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300곳 중 “신규 고용에 나서겠다”는 곳은 10.3%에 그쳤다. 해고가 어려워지면서 어떻게든 신규 채용은 피하겠다는 반응이었다. “직원의 실질임금이 줄어든다”라는 응답이 과반(50.7%)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예고하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 생태계와 기

업 현실에 눈을 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옛그제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낙관론을 폈다.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예기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기업에 적잖은 부담이다. 큰 기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에는 더 큰 충격이 온다.

시장과 현장을 무시한 정부의 ‘정책 독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지난 1년간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이 잘 보여준다. 올해 1분기 소득하위 20%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해 분배지표가 최악을 기록했다. 하위 20% 소득 중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처음으로 앞지르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 주재 경제점검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소득분배 약화는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 중심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정책실패에 대해 핑계거리만 찾는 회의가 되고 말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말란 보장이 없다. 문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수정 보완하라”고 했지만, 얼마나 개선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최근 발표된 10대 경제지표 중 9개가 악화됐다. 연일 하락하는 증권시장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기업들의 신음소리와 시장 경고음이 점점 커지는 데 정부만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용소 집단’ 북한의 ‘적반하장’ 對南 인도주의 공세

북한이 지난 주말 마·북 정상회담 취소 고비를 넘기자 노골적인 ‘태세 전환’으로 돌변했다. 그제 관영매체를 통해 집단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13명의 송환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남 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지금 우리 인민들은 기대를 안고 사랑하는 딸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송환이) 남조선 당국의 성의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라고 압박했다.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뉴경도’도 “송환문제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선 북·남 사이의 그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고 늘어났다.

당장 내일(일) 남북한 고위급회담에 앞서 북한이 ‘여종업원 송환’ 카드를 빼든 것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철도 연결 등 기시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큰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북한이다. 더

구나 마·북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제기한 북한 내 인권, 일본 인납북자 문제에 대한 사전 맞바탕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송환 요구의 명분으로 ‘인도주의’ ‘인륜’을 내건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정치범수용소에 8만~12만 명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나치보다 더한 ‘수용소 집단’으로 간주된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3만여 탈북자가 그 ‘생지옥’의 증인들이다. 그런 북한이 남한을 압박하니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없다.

남북관계 개선이 아무리 시급해도 협상은 한쪽만의 ‘성심성의로’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남측이 “판을 깨지 말자”는 식의 소극적 태도일 때 북한은 더 기세등등했던 게 지난 20년간의 경험이다. 왜 먼저 단당하게 북한 주민 인권, 억류한 국민 석방 등을 요구하지 못하는가. 그래야 협상력도 커지고 남북 간에 허세가 아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진다.

시진핑의 거둬들인 ‘기술 자립’선언, 한국 중간재 산업 위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들어 주요 행사 때마다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외치는 게 예사롭지 않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과학원·중국공정원 원사(院士: 과학계 최고 권위자)대회에서 핵심 기술 국산화를 역설했다. 시 주석이 지난달 “정보화를 천제일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인터넷 관련 회의) “핵심 첨단기술 육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공산당 정치국 회의)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중국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해 통상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제재를 가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상황이 심각하다”며 “천하의 인재를 모으라”고 지시했다. 미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중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라는 예기로 읽힌다.

주목할 것은 중국의 기술자립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해 중국시장은 한국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했는데 대중 수출의 78.9%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활화학제품 등 중간재 품목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의 경우 홍콩을 포함한 중국 비중이 68%에 달한다. 중국의 기술자립 선언은 곧 한국 중간재 산업의 위기 신호나 다름없다.

시 주석은 기술자립을 넘어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점으로 올라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앞서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나면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를 가질 분야가 하나도 없다는 우울한 경고까지 나온다. 대중 수출전략의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천자칼럼 ‘슬로(slow) 건축’

미국 뉴욕 맨해튼의 컬럼비아대 옆에 있는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은 127년째 공사 중이다. 미국 성공회가 1892년 첫 삽을 뜬 뒤로 2050년 완공 기일까지 33년이 남았다. 그래서 ‘미완의 세인트 존’으로 불린다. 19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158년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되면 실내 면적 1만1200㎡의 세계 최대 성당이 된다.

이보다 먼저 착공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성당)는 137년째 건축 중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30세 때인 1882년부터 74세로 타계한 1926년까지 40년을 바쳤고, 그의 사후 100주년인 2026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버팀목 없는 곡면 설계의 ‘느린 방식’으로 위대한 성당을 짓겠다는 그의 ‘슬로(slow) 건축’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가우디는 성당의 중앙 첨탑 높이를 170m로 설계했다. 완공되면 독일 울름 대성당(161m)을 넘는 세계 최고(最) 기록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 바르셀로나 도심에서 가장 높은 문주의 언덕을 넘어서는 것은 신을 넘

‘슬로(slow) 건축’



보는 것과 같다는 가우디의 겸손한 건축이념이 반영돼 있다.

이탈리아 시에나의 시에나 대성당은 800년이나 미완인 채로 남아 있다. 경쟁 도시 파렌체보다 더 큰 성당을 짓기 위해 1229년 착공했다가 페스트 창궐과 재정 악화로 중단돼 지금은 거대한 벽체만 남아 있다. 종교 건축 말고도 슬로 건축의 사례는 많다. 프랑스 베르사유궁전을 완성하는데 50년이 걸렸다.

한때는 짧은 기간에 높은 건물을 짓는 속도 경쟁이 벌어졌다. 1973년 세계무역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40여 년간 ‘미친투의 아버지’로 불린 뉴욕 엘파이어스테이트빌딩은 102층 공사를 11개월 만에 끝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공법 덕분이었다. 이는 2002년 삼암월드컵경기장 공사에도 적용됐다.

최근 건축계가 다시 ‘슬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롯데알 서교호텔이 부티크 호텔인 라이즈(RYSE)호텔로 거듭나는 데에는 7년이 걸렸다. 지난달 완공한 이 호텔엔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였지만, 흥익대 주변의 ‘젊은 문화’와 인근 상권까지 고려하느라 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2011년부터 이 호텔 리모델링을 이끈 한국계 미국인 건축가 스티븐 송 SCAAA 대표의 말처럼 과거에는 빨리, 높이, 크게 짓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지금은 ‘천천히 오래 스며드는 건축 문화’가 더 중요해졌다. 1947년 태동한 한국 근대 건설산업 역사도 70년이 넘었다.

세계 곳곳의 ‘느린 건축’ 현장을 보면서 사 가우디의 명언을 다시 떠올려 본다. “사그라다파밀리아는 천천히 자라날 것이다. 오랫동안 살아남을 운명을 지닌 모든 것은 그래 왔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새로운 여왕이 될 절호의 기회!

제8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SBS골프 단독 생중계

롯데스카이힐 제주

1R: 6월 1일(금) 오전12시~오후5시

2R: 6월 2일(토) 오전12시~오후5시

FR: 6월 3일(일) 오전11시~오후4시

디펜딩 챔피언_ 김지현

신홍 강자 등극_ 김아림

2018 상금순위 1위_ 장하나

시즌 2승 도전_ 인주연

SBS골프 IPTV 채널번호: LG유플러스 tvG 53번 / 스카이라이프 55번, SKT 57번 / SK브로드밴드 Btv 131번

m.sbsgolf.com | sbsgolfflow | SBS골프